

(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보도 시점 : 2025. 6. 16(월) 19:00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계란 가격 상승 정말 생산자 탓일까?
이 대통령,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 강조. 현장에선 반대로

정부는 16일 계란가격 상승이 농민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투입한 담합조사, 중국산 가공란 무관세 수입 등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계란 생산 농민으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계란가격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저렴한 난각번호 4번 계란(0.05㎡/마리)을 없애고, 더 비싼 3번 계란(0.05㎡/마리)을 생산토록 강제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33% 줄고,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인데 이를 생산자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생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를 엉뚱하게 농민들의 담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육량을 감소시켜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같은 애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상위 수준의 동물복지를 요구하면서, 동물복지 기준도 없고, 위생상태도 불량한 중국산 계란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축산농가를 죽이고 중국 농민을 살리는 행태” 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규제 완화” 를 주장했는데 현장에선 반대로 “민생 억압과 규제 강화” 인 셈이다.